



광주 '교통 기동순찰대' 뒤편 14일 발대식을 한 광주지방경찰청 '교통 오토바이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30명이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4인 1개팀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지구대·파출소에 분산 배치돼 상습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초중고 전면 5일수업

내년부터...2학기 일부학교 시범실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월 2회 운영되는 주5일 수업제가 매주 실시됨에 따라 초·중·고의 방학기간은 4월 가람 줄고, 주중 수업시간은 다소 늘게 된다. <관련기사 7면> 정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10% 정도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한다. 정부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할 자율권을 주면 모든 초등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할 것이 유력해 내년이 사실상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첫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제는 2000년대 초반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월 1회, 2006년부터 월 2회 시행돼왔다. 내년부터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방학은 4일 정도 줄어들고, 주중 수업시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시수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대로 유지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전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사의 96.3%,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 시행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주5일제 전면시행에 앞서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일봄 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고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학교의 성과를 보며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産銀 입찰 포기...우리銀 일괄매각 무산 가능성

光銀 다시 분리매각 되나

광주상의 등 인수작업 재시동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입찰에서 산은금융지주를 배제키로 함에 따라 계열사인 광주은행 분리매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유력했던 산은금융이 배제된 데다, KB·신한·하나금융 등이 입찰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우리금융 일괄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를 준비해 왔던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 전남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수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련기사 9면> 14일 금융위원회와 광주상공회의

소에 따르면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 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금융에 인수되는 방식이 유력시됐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산은금융이 제외됨에 따라 KB금융과 하나금융 등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주사는 우리투자증권 등 비은행 부문 인수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산 규모 300조원을 넘는 우

리금융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는 비은행부문 수익비중을 높여야 하는 KB금융의 경우 자산이 KB투자증권의 10배에 달하는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신한금융은 보험 부문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은행 규모가 작은 하나금융은 대기업 금융에 강점이 있는 우리은행을 선호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들 지주사의 입장은 오는 29일 우리금융 일괄매각 입찰참가자의향서 접수 마감에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만약 이들이 입찰 참여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공격 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 지분이나 계열사를 분리매각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분리매각을 염두에 두고 '광주은행출자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광주은행 인수작업에 다시 나설 방침이다.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요구한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대응방안

원자력 안전 대토론회

광주일보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원자력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원전은 클린 에너지이면서도 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한편,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은 국민생활에 큰 해를 끼칩니다.

이번 대 토론회는 원전과 방사선 영향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정보들을 공개해 국민들이 원전을 바로 이해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22일(수)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그랜드볼룸
- 기조 연설
일본 원전사고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 제고방안
- 박근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주제발표
1. 한반도 지진 가능성과 우리 원전의 대응 능력
-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 본부장
2. 일본 원전사고, 우리 식품에 미칠 영향과 대책
- 이광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해평가부 부장
3.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방사선 환경영향과 대응
- 정운관 조선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패널토론
◇ 좌장 :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 소비자계 :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안감 해소 방안
- 안명수 전국주부교육진흥회 회장
◇ 교육계 :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교육 방안
- 박남영 전남 원자력이해지도포럼 회장
◇ 언론계 :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도와 소통의 중요성
- 정정환 광주일보 편집국장

光州日報社·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남 시장·군수 "F1 계속돼야 한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14일 F1 대회를 지속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전남의 발전동력, F1은 지속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면 지역 미래는 없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F1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F1 그랑프리를 비롯해 여수 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 등 전남 3대 국제 행사가 균형적으로 성공해야 전남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면서

"지금은 F1 대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F1 대회는 국제 행사의 속성상 지금 당장은 막대한 비용부담이 수반되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전남에 투자비용 이상의 막대한 경제효과와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 차세대, 의회, 시민단체,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F1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0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1. 개요 : 작품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기간 : 2011년 6월 15일(수) ~ 6월 21일(화)
- 결과발표 : 2011년 7월 1일(금),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월(개인 용지 사용가능)

2. 참가

- 참가비 : 5,000원 (20명 이상 단체 3,000원)
* 단체는 접수 전 연락바랍니다. (062-220-0541)
- 접수처 :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 새싹그리기 축제 담당자 앞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 우편번호 501-711

3.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 사유가 인정될 시 시상에서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 주 최 | **광주일보사**

| 협 찬 | **SAMSUNG 삼성생명**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